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지원확대
및 개선방안 연구

김기희 책임연구위원

연구진

연구책임

- 김기희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목 차 -

I. 연구배경과 목적	1
II. 대전 제조업 특성 분석	2
1. 제조업체 규모 특성	2
1) 제조업체 규모 동향	2
2) 종사자수와 종사자수	3
3) 출하액과 부가가치	4
4) 종사자수 및 출하액 규모별 사업체수 및 변화 추이	5
2. 제조업체 경영실태	8
1) 성장성	8
2) 수익성	10
3) 재무구조	11
4) 생산성	13
III. 해외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동향	16
1. 해외 주요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동향	16
1)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의 추진배경	16
2)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동향	17
3) 주요 신흥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동향	18
2. 정책적 시사점	19
1) 글로벌 기업 생산지 입지전략의 변화 움직임	19
2)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	20
IV. 제조업 전반의 지원방안	22
1. 대전 제조업 특성 및 정책과제	22
1) 제조업체 규모 특성	22
2) 제조기업 경영실태 특성	23
3) 정책과제	25

2. 부분별 지원시책	26
1) 연구개발(기술개발) 지원	26
2) 인력양성 지원	28
3) 마케팅 지원	29
V. 전통 제조업(뿌리산업) 지원방안	30
1. 뿌리산업의 개념과 특성	30
1) 뿌리산업의 개념	30
2) 뿌리산업의 역할	30
3) 뿌리산업의 특징	31
2. 뿌리산업 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32
1) 주요 국가들의 뿌리산업 정책 추진현황	32
2) 뿌리산업의 극복해야 할 과제	33
3) 뿌리산업의 정책 추진과제	34
3. 뿌리산업 지원방안	36
1) 뿌리산업의 첨단화	36
2) 뿌리산업의 고도화	37
3) 뿌리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39
4) 뿌리기업 경영여건 개선	40
5) 뿌리산업 인력수급 원활화	41
6) 뿌리산업 글로벌화	43
IV. 제조업 강소기업 지원방안	45
1. 고성장 중소기업 지원방안	45
1) 고성장 중소기업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45
2) 고성장 중소기업의 애로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45
3) 고성장 중소기업의 정책방향	46
4) 세부추진사업	47
2.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강화방안	48
1) 배경 및 필요성	48

2) 중소·중견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49
3) 중소·중견기업의 발전과제	50
3)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사업	52

- 표 목 차 -

< 표 2-1 > 제조업 주요 지표별 규모 및 변화 추이	2
< 표 2-2 >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기준 상위 10대 제조업	3
< 표 2-3 > 출하액 및 부가가치 기준 상위 10대 제조업	5
< 표 2-4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및 변화 추이	6
< 표 2-5 > 출하액 규모별 사업체수 및 변화 추이	7
< 표 2-6 > 제조업체의 성장성	9
< 표 2-7 > 제조업체의 수익성	11
< 표 2-8 > 제조업체의 재무구조	12
< 표 2-9 > 제조업체의 생산성(I)	14
< 표 2-10 > 제조업체의 생산성(II)	15
< 표 3-1 > 한국의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 전략	16
< 표 3-2 > 주요 선진국 제조업 강화정책	18
< 표 5-1 > 뿌리산업 생산기반기술 발전 방향	36

- 그림 목 차 -

< 그림 5-1 > ACE 뿌리산업 개념	38
< 그림 6-1 > 중소·중견기업의 세계적 강소기업 도약방안	50
< 그림 6-2 > 강소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제	51

I. 연구배경과 목적

- 대전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발달한 전형적인 도시형 산업구조 특성을 보이고 있고, 서비스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서비스업의 비대한 산업구조가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 지역경제의 성장 관점에서는 농업과 제조업, 기간산업, 서비스업의 원활한 순환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특히 지역경제 전반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이 광대한 제조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음

- 이에 따라 최근 서비스산업의 진흥은 물론 제조업의 육성을 통한 대전경제 파이 키우기가 쟁점이 되고 있음. 그러나 근본적인 제조업의 육성은 여타 산업과의 관계 속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선순환 구조 측면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적 혁신환경의 조성이 매우 필요함.
 - 그러나 본 과제가 단기적 정책추진사업들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조업 발전환경을 혁신하는 패러다임적 접근보다는 가급적 단·중기 관점에서 지역 제조기업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지역 제조업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제조업 단·중기적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특히 뿌리산업 업종의 첨단화 및 경쟁력 강화, 지역 제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강소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단·중기적 정책적 지원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대전 지역 제조업의 특성분석과 지역 제조업체의 성장성과 수익성, 재무구조, 생산성 등에 관한 경영실태 분석을 병행하여 부문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지원방안을 제시코자 하며,
 - 이와 함께,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제조업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음

II. 대전 제조업 특성 분석

1. 제조업체 규모 특성

1) 제조업체 규모 동향

- 대전지역의 제조업체 규모 동향은 우선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수는 2010년 현재 796개 업체로 36,753명이 종사하고 있음
 - 사업체수는 2000년 623개에서 2005년과 2008년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 796개에 이르기까지 추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 종사자수는 2000년 32,876명에서 2010년 36,753명으로 소폭 증가하기까지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제조업 사업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종사자수가 사업체수 만큼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발전에 의한 생산자동화, 노동투입보다는 자본투입 중심의 생산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표 2-1 > 제조업 주요 지표별 규모 및 변화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규모											
사업체수(개)	623	626	631	632	648	647	685	718	683	728	796
종사자수(명)	32,876	31,728	31,105	29,147	30,250	30,463	30,270	32,365	32,108	32,925	36,753
출 하 액(억원)	69,057	71,858	73,077	75,287	8,8795	86,226	85,219	94,664	115,731	116,049	136,424
부가가치(억원)	33,255	34,077	35,614	38,141	46,787	41,339	39,264	42,218	50,035	48,063	53,312
증가율											
사업체수(개)	6.9	0.5	0.8	0.2	2.5	-0.2	5.9	4.8	-4.9	6.6	9.3
종사자수(명)	4.4	-3.5	-2.0	-6.3	3.8	0.7	-0.6	6.9	-0.8	2.5	11.6
출 하 액(억원)	16.9	4.1	1.7	3.0	17.9	-2.9	-1.2	11.1	22.3	0.3	17.6
부가가치(억원)	11.7	2.5	4.5	7.1	22.7	-11.6	-5.0	7.5	18.5	-3.9	10.9

- 10인 이상 제조업체는 2010년 13조 6,424억원의 생산품을 출하하여 5조 3,312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출하액은 2000년 6조 9,057억원 수준이었으나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는 2010년 1.98배 수준에 이르기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부가가치는 2000년 3조 3,255억원에서 2010년 1.6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출하액 증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2)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 사업체수 기준으로 규모가 큰 대전의 상위 제조업 산업부문은 기타 계 및 장비 제조업이 123개 업체로 전체의 15.5%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 표 2-2 >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기준 상위 10대 제조업(2010)

산 업	사업체수(개) (구성비)		산 업	종사자수(명) (구성비)	
제조업	796	100.0	제조업	36,753	100.0
기타 기계 및 장비	123	15.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5,682	15.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97	12.2	기타 기계 및 장비	5,062	13.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1	11.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3,689	10.0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56	7.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3,382	9.2
식료품 제조업	55	6.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3,049	8.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50	6.3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2,212	6.0
전기장비	41	5.2	식료품	2,053	5.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34	4.3	자동차 및 트레일러	1,661	4.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34	4.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467	4.0
섬유제품; 의복제외	29	3.6	전기장비	1,378	3.7

- 이어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97개 업체로 1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이 91개 업체로 11.4%,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이 56개 업체로 7.0%, 식료품 제조업이 55개 업체 6.9% 등의 순.
- 종사자수 기준으로 규모가 큰 대전의 상위 제조업 산업부문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5,682명이 종사하여 전체의 15.5%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 이어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5,062명으로 13.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이 3,689명으로 10.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이 3,382명으로 9.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3,049명으로 8.3% 등의 순임.

3) 출하액과 부가가치

- 출하액 기준으로 규모가 큰 대전의 상위 제조업 산업부문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1조 9,783억원으로 전체의 14.5%를 차지하여 가장 크고,
 - 이어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1조 9,149억원으로 14.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1조 4,102억원으로 10.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1조 3,669억원으로 1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이 1조 2,248억원으로 9.0% 등의 순임.
- 부가가치 기준으로 규모가 큰 대전의 상위 제조업 산업부문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7,372억원으로 전체의 13.8%를 차지하여 가장 크고,
 - 이어서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7,245억원으로 13.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5,709억원으로 10.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5,298억원으로 9.9%담배 제조업이 4,921억원으로 10.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3,967억원으로 8.3%, 담배 제조업이 4,706억원으로 8.8% 순임.

< 표 2-3 > 출하액 및 부가가치 기준 상위 10대 제조업(2010)

산업	출하액 (억원) (구성비)		산업	부가가치(억원) (구성비)	
제조업	136,424	100.0	제조업	53,312	100.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9,783	14.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7,372	13.8
기타 기계 및 장비	19,149	14.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7,245	13.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4,102	10.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5,709	10.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13,669	10.0	기타 기계 및 장비	5,298	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2,248	9.0	담배	4,706	8.8
전기장비	8,561	6.3	전기장비	3,931	7.4
담배	8,106	5.9	식료품	3,319	6.2
식료품	7,612	5.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151	5.9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6,597	4.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707	5.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5,427	4.0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2,557	4.8

4) 종사자수 및 출하액 규모별 사업체수 및 변화 추이

- 종사자 규모별 제조업 사업체수는 2010년 10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 10~19인 규모가 382개 사업체로 전체의 48.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 이어서 20~49인 규모가 276개로 전체의 34.7%를 차지하여 10~49인 규모가 전체의 82.7%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500인 이상 규모는 6개로 전체의 0.8%, 300~499인 규모는 8개로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300인 이상 대기업은 14개로 전체의 1.8%에 불과함
- 2000년 이후 변화 추이를 보면, 2010년까지 총 173개 사업체가 증가하였음

- 이 중에서 10~19인 규모는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85개 사업체가 증가하였고, 20~49인 규모는 79개 사업체가 증가하여, 10~49인 미만 규모가 총 164개 사업체가 증가하여 총증가분의 94.8%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500인 이상 규모는 2000년 이후 2개 사업체가 감소하였고, 200~299인 규모의 사업체도 4개 사업체가 감소하였음

< 표 2-4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및 변화 추이

구분	규모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구성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개)	제조업	623	626	631	632	648	647	685	718	683	728	796 (100.0)
	10 ~ 19	297	287	302	329	347	343	360	382	353	364	382 (48.0)
	20 ~ 49	197	214	201	192	187	190	207	215	203	233	276 (34.7)
	50 ~ 99	67	66	77	60	59	60	64	58	64	66	71 (8.9)
	100 ~ 199	36	33	30	27	34	32	37	38	41	42	44 (5.5)
	200 ~ 299	13	15	9	14	11	11	5	13	8	10	9 (1.1)
	300 ~ 499	5	3	6	3	3	4	7	5	9	9	8 (1.0)
	500명 이상	8	8	6	7	7	7	5	7	5	4	6 (0.8)
전년 대비 증감 (개)	제조업	40	3	5	1	16	-1	38	33	-35	45	68
	10 ~ 19	19	-10	15	27	18	-4	17	22	-29	11	18
	20 ~ 49	24	17	-13	-9	-5	3	17	8	-12	30	43
	50 ~ 99	-7	-1	11	-17	-1	1	4	-6	6	2	5
	100 ~ 199	-1	-3	-3	-3	7	-2	5	1	3	1	2
	200 ~ 299	5	2	-6	5	-3	0	-6	8	-5	2	-1
	300 ~ 499	0	-2	3	-3	0	1	3	-2	4	0	-1
	500명 이상	0	0	-2	1	0	0	-2	2	-2	-1	2

- 출하액 규모별 제조업 사업체수는 2010년 10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 10~50억 규모가 402개 사업체로 전체의 50.5%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 이어서 50~100억 규모가 105개 사업체로 13.2%, 100~300억 규모가 107개 사업체로 13.4%, 5~10억 규모가 68개 사업체로 8.5%를 차지하고 있음. 이로써 100억 미만 규모가 623개 사업체로 전체의 78.3%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5,000억 이상 규모는 3개 사업체로 전체의 0.4%, 1,000~5,000억 규모는 20개 사업체로 2.5%를 차지하고 있어, 1,000억 이상 출하액 규모는 23개 사업체로 전체의 2.9%에 불과한 실정임

< 표 2-5 > 출하액 규모별 사업체수 및 변화 추이

구분	규모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구성비)
출하액 규모별 사업체 수 (개)	제조업	623	626	631	632	648	647	685	718	683	728	796 (100.0)
	5억 미만	105	99	86	78	59	52	42	54	49	36	48 (6.0)
	5 ~ 10	154	136	123	145	126	91	98	109	73	89	68 (8.5)
	10 ~ 50	233	259	287	268	306	340	370	366	347	371	402 (50.5)
	50 ~ 100	56	56	50	54	59	69	79	85	85	92	105 (13.2)
	100 ~ 300	40	39	49	49	54	53	49	58	74	83	107 (13.4)
	300 ~ 400	3	3	4	7	7	7	9	9	9	10	10 (1.3)
	400 ~ 1000	19	21	17	18	24	20	25	22	27	27	33 (4.1)
	1000 ~ 5000	10	10	12	10	10	12	10	12	16	17	20 (2.5)
	5000억 이상	3	3	3	3	3	3	3	3	3	3	3 (0.4)
전년 대비 증감 (%)	제조업	40	3	5	1	16	-1	38	33	-35	45	68
	5억 미만	-20	-6	-13	-8	-19	-7	-10	12	-5	-13	12
	5 ~ 10	15	-18	-13	22	-19	-35	7	11	-36	16	-21
	10 ~ 50	36	26	28	-19	38	34	30	-4	-19	24	31
	50 ~ 100	-2	0	-6	4	5	10	10	6	0	7	13
	100 ~ 300	10	-1	10	0	5	-1	-4	9	16	9	24
	300 ~ 400	-2	0	1	3	0	0	2	0	0	1	0
	400 ~ 1000	2	2	-4	1	6	-4	5	-3	5	0	6
	1000 ~ 5000	0	0	2	-2	0	2	-2	2	4	1	3
	5000억 이상	1	0	0	0	0	0	0	0	0	0	0

- 2000년 이후 변화 추이를 보면, 출하액 10억 이하 규모의 사업체는 감소하였고 그 이상 규모의 사업체는 증가하였음
 - 5~10억 규모의 사업체는 매년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0년까지 86개 사업체가 감소하여 전규모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이어서 5억 미만 규모의 사업체는 57개 사업체가 감소하였음.
 - 반면, 10~50억 규모의 사업체는 2010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면서 169개 사업체가 증가하였으며, 50~100억 규모와 100~300억규모 사업체 역시 매년 증감을 반복하면서 각각 49개 사업체와 67개 사업체가 증가하였음
 - 5,000억 이상 출하액 규모 사업체는 증감이 없었지만, 특히, 1,000~5,000억 규모의 대형 사업체가 10개 증가하고 400~1,000억 규모의 사업체도 14개 사업체가 증가하였음

2. 제조업체 경영실태

1) 성장성

- 기업의 성장성은 경제전반이나 특정 산업 내에서 경제적인 지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임
- 대전지역 제조업체의 성장성을 매출액, 총자산, 유형자산 등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전국과 비교 분석함.
 - 여기서는 2008년 대비 2009년의 증가율을 분석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은 모두 제조업 부문 사업체 대상임
 - * 수출기업은 수출의존도(=수출액/매출액)가 50% 이상인 기업을 말함

- 매출액 증가율은 전산업과 제조업, 제조업부문의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이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전국보다 각각 9.3%p, 8.6%p 높음.
 - 전산업과 제조업은 대전이 각각 19.4%, 25.0%로 전국의 14.5%, 17.5%보다 각 4.9%p, 7.5%p 높고,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모두 전국보다 높은 수준임
 - 반면, 내수기업 증가율이 14.2%로 가장 낮고 전국보다 2.6%p 낮음

- 총자산 증가율은 전산업보다 제조업이 높지만,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국보다 높은 수준임
 - 중소기업이 전국보다 2.6%p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을 뿐, 대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은 전국보다도 낮은 수준임

- 유형자산 증가율은 전산업과 제조업의 증가율이 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부문의 중소기업 유형자산증가율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국보다 높은 수준임
 - 중소기업이 전국보다 3.4%p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을 뿐, 전산업 대기업, 수출기업은 전국보다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표 2-6 > 제조업체의 성장성

성장성 항목	지역	전산업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매출액 증가율	대전	19.4	25.0	25.0	25.3	26.9	14.2
	전국	14.5	17.5	18.5	16.0	18.3	16.8
총자산 증가율	대전	8.4	10.3	9.8	14.5	10.1	11.1
	전국	9.6	11.7	11.6	11.9	11.5	11.9
유형자산 증가율	대전	2.6	3.3	1.8	13.1	2.0	7.3
	전국	8.1	9.7	9.6	9.7	10.6	8.9

2) 수익성

- 수익성은 자본의 투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는지를 의미함. 투자된 자본은 회계적으로 부채, 자기자본 및 총자본으로 구분하여 표시되고 있으며, 투자자본을 이용하여 얻어진 이익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으로 표시됨.
- 대전지역 제조업체의 수익성을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등을 전국과 비교 분석함.
 - 여기서는 2009년 기준이며.
 -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은 모두 제조업 부문 사업체 대상임
 - *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 * 매출액세전순이익률 = 법인세차감전순이익/매출액
 -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산업은 전국보다 높지만, 제조업이 전국보다 낮으며, 제조업부분의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전국보다 높고,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임
 - 전산업은 전국보다 0.4%p 높지만, 제조업부분은 전국보다 0.4%p 낮음
 - 제조업부분 중소기업은 전국보다 2.8%p, 내수기업은 3.6%p 높아, 대체로 중소기업 내수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전국보다 높은 수준임
-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전산업과 제조업이 모두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제조업부분의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전국보다 크게 높지만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높은 수준임
 - 전산업은 전국보다 5.0%p, 제조업은 6.1%p 높은 수준이며,
 - 제조업부분에서 전국보다 대기업은 5.0%p, 수출기업은 5.1%p 높은 수준이지만, 중소기업은 1.2%p, 내수기업은 3.3%p로 상대적으로 높은 폭이 낮음

- 이자보상비율은 대전이 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제조업 전체, 그리고 제조업부문의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
 - 전국보다 전산업은 431.7%p, 제조업은 856.8%p 매우 높은 수준이며
 - 제조업부문에서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각각 1,274.2%p, 1,380.2%p 매우 높은 수준이며,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각각 68.3%p, 201.4%p 높은 수준임

< 표 2-7 > 제조업체의 수익성

수익성 항목	지역	전산업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대전	6.3	6.5	6.3	8.3	6.0	9.6
	전국	5.9	6.9	7.8	5.5	7.8	6.0
매출액세전순이익률	대전	10.5	13.1	13.8	5.5	13.8	8.7
	전국	5.5	7.0	8.8	4.3	8.7	5.4
이자보상비율	대전	821.7	1,402.2	2,094.7	381.4	2,275.4	563.3
	전국	390.0	545.4	820.5	313.1	895.2	361.9

3) 재무구조

- 대전지역 제조업체의 재무구조를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비율 등을 전국과 비교 분석함.
 - 여기서는 2009년 기준이며
 -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은 모두 제조업 부문 사업체 대상임
 - *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 *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회사채)/총자본
 -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부채비율은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 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부문의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부채비율이 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전산업은 61.6%p, 제조업은 58.9%p 각각 낮은 수준이며,
- 제조업부문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부채비율이 높지만 전국보다 28.4%p 낮은 수준이며, 수출기업보다는 내수기업 부채비율이 높지만 전국보다 36.2%p 낮은 수준임

- 차입금의존도는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 낮은 수준이면서 전산업보다 제조업의 차입금의존도가 낮고, 제조업부문의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모두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역내에서는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차입금의존도가 대기업과 수출기업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 전산업은 15.2%p, 제조업은 20.2%p 각각 낮은 수준이며
 -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2.1%, 1.1%로 매우 낮은 수준이면서 전국보다 각각 17.5%p, 18.0%p 낮은 수준이고,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전국보다 각각 1.4%p, 7.0% 낮은 수준임

< 표 2-8 > 제조업체의 재무구조

재무구조 항목	지역	전산업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부채비율	대전	53.2	42.6	37.9	106.0	36.8	76.6
	전국	114.8	101.5	86.3	134.4	90.6	112.8
차입금의존도	대전	13.0	5.3	2.1	34.1	1.1	24.4
	전국	28.2	25.5	19.6	35.5	19.1	31.4
자기자본비율	대전	65.3	70.1	72.5	48.5	73.1	56.6
	전국	46.6	49.6	53.7	42.7	52.5	47.0

- 자기자본비율은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제조업부문의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모두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과 수출기업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음
 - 전산업과 제조업은 전국보다 각각 18.7%p, 20.5%p 높은 수준이며

- 제조업부분에서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면서 전국보다 각각 18.8%p, 20.6%p 높은 수준인 반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전국보다 5.8%p, 9.6%p 각각 높은 수준임

4) 생산성

- 대전지역 제조업체의 생산성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전국과 비교 분석함
 - 여기서는 2009년 기준이며.
 -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은 모두 제조업 부문 사업체 대상임
 - 생산성 지표(I) : 노동장비율, 자본집약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 생산성 지표(II) :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기계투자효율, 부가가치율

① 생산성 지표(I)

- 노동장비율은 대전이 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보다 제조업이 특히 높은 수준임. 제조업부분의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노동장비율이 특히 높은 수준
 -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 전국보다 각각 528%p, 960%p 높은 수준이며
 - 제조업부분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전국보다 각각 2,452%p, 1,842%p 매우 높은 수준이며,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이들 기업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전국보다는 각각 248%p, 571%p 높은 수준임
- 자본집약도 역시 대전이 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보다 제조업이 특히 높은 수준임. 제조업부분의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자본집약도가 특히 높음
 -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 전국보다 각각 1,898%p, 4965%p 매우 높은 수준이며
 - 제조업부분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전국보다 각각 10,334%p, 8,113%p 매우 높은 수준이며,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이들 기업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전국보다는

각각 690%p, 1,637%p 높은 수준임,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대전이 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보다 제조업이 특히 높은 수준임. 제조업부문의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특히 높음
 -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 전국보다 각각 478%p, 1,216%p 높은 수준이며
 - 제조업부분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전국보다 각각 2,534%p, 2,004%p 매우 높은 수준이며,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이들 기업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전국보다는 각각 174%p, 392%p 높은 수준임

< 표 2-9 > 제조업체의 생산성(Ⅰ)

생산성 항목	지역	전산업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노동장비율	대전	638	1,379	2,731	332	2,072	687
	전국	110	419	279	84	230	116
자본집약도	대전	2,248	5,426	11,211	944	8,882	1,973
	전국	350	461	877	254	769	336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대전	552	1,314	2,708	234	2,165	464
	전국	74	98	174	60	161	72

② 생산성 지표(Ⅱ)

- 생산성 비율은 기업활동이 어느 정도 능률적으로 이루어 지는지와 성과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임. 총자산투자효율은 기업에 투자된 총자산으로 1년 동안 얼마 만큼의 부가가치를 산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자본생산성을 나타냄. 부가가치율은 매출액 중에서 생산활동에 동원된 생산요소(토지, 노동, 자본)에 귀속되는 소득의 비율로서 부가가치를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함

- 총자본투자효율은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 전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모두 전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전산업과 제조업은 전국보다 각각 3.4%p, 3.0%p 높은 수준이며
 -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전국보다 각각 4.4%p, 1.1%p 높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은 각각 3.4%p, 2.0%p 높은 수준임

- 부가가치율은 전산업보다 제조업이 낮지만, 전국과 같은 수준이며, 제조업부문
 의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임
 - 전산업은 전국보다 0.3%p 낮지만 제조업은 같은 수준임
 -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대기업과 수출기업보다 부가가치율이 높으면서 전국보
 다 4.8%p, 7.0%p 높은 수준임. 대기업은 전국보다 0.2%p 소폭 높지만 수출기
 업은 전국보다 0.3% 소폭 낮은 수준임.

< 표 2-10 > 제조업체의 생산성(II)

효율성 항목	지역	전산업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총자본투자효율	대전	24.6	24.2	24.2	24.8	24.4	23.5
	전국	21.2	21.2	19.8	23.7	21.0	21.5
부가가치율	대전	26.6	21.4	20.9	27.3	20.2	29.3
	전국	26.9	21.4	20.7	22.5	20.5	22.3

III. 해외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동향

1. 해외 주요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동향

1)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의 추진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고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면서 각국 정부는 성장잠재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또한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음.
- 이에 따라 각국은 고용과 성장은 물론 위기 대응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조업을 육성하고 부활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산업간 융합의 진전에 따라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중국 등 신흥국의 임금상승과 통화 강세 등으로 선진국 기업의 경쟁여건이 개선

< 표 3-1 > 한국의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 전략

대상	주요 내용
전기자동차	소형 준준형급 전기차 개발 및 인프라, 제도 등 기반 정비
미래형 선박	국제해사기구((MC)의 선박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대응한 녹색선박 개발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 주력산업과 연계한 임베디드 SW-시스템반도체 공생발전형 생태계 구축
디스플레이	TV용 AMOLED, 플렉서블 패널에 대한 R&D 투자 확대
기계	기계 장비의 친환경 고효율화 유도
산업용 섬유	섬유소재의 기능성 강화 및 탄소 섬유 등 고부가가치 섬유 국산화

자료 : 지식경제부

2)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동향

-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선진국 정부들은 제조기업 유치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미국 오바마 정부는 세계 감면과 클러스터 지원을 통해 제조업의 귀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일부 미국 기업들은 자국으로 돌아오고 있음.
- 독일, 일본 - 경쟁력 있는 제조기반을 바탕으로 기업 유인책 강화

① 미국

- 고용창출을 위해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회복 견인 기대
-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
- 기업들도 세계 혜택과 투자 지원 등에 힘입어 점차 해외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회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② 프랑스

- 프랑스 정부는 세계 개편, 정부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
-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화

③ 독일

- 독일 정부는 수출업체 지원, 노동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위기 극복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지원책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
- 노동시장 유연성, 미국식 대학 개혁,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독일 제조업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④ 일본

- 일본 정부는 수출기업 지원, 해외기업 M&A 유도

- 엔고로 저하된 수출업체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직·간접적인 지원책을 마련
- 일본 정부는 공장의 입제제한을 폐지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였으며, 일본 제조기업들도 국제적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표 3-2 > 주요 선진국 제조업 강화 정책

국가	주요 정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법인세 인하(36%에서 28%)와 이전 비용의 20%를 손금 산업 추진 • 해외 자회사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국내 귀환을 유도 • 연방정부의 혁신 클러스터 지원(Jobs & Innovation Accelerator Challenge)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조세부담세(법인세와 영업세 등 포함) 38.7%에서 29.8%로 인하 • 해고 절차 간소화와 노동시간 연장(주당 48시간) 등 노동시장 유연화(Angenda 2010) • 중앙정부의 선도 클러스터 지원(Spitzen-Cluster)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40.69%에서 38.01%로 인하 • 지역 정부의 지역 클러스터 육성(기업입지촉진법)과 입지규제 완화 • 기술연구협동조합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구개발 협력

자료 : 강중구·문병순(2012), “선진국 제조기업 U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LGERI 리포트」, LG경제연구원, 2012. 8.1. 5쪽.

3) 주요 신흥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동향

① 중국

- 중국 정부는 수출지원 및 해외진출 장려
- 자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 확대 및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저

우추취(走出去) 전략'을 강화

- 또한 자동차산업을 향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주요 첨단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 실시
- 한편, 경쟁 열위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보호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전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

② 브라질

- 브라질 정부는 무역장벽 강화, 수출금융 지원 등 자국 산업호보 강화
- 무역장벽을 강화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헤알화 방어 및 수출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에 노력

2. 정책적 시사점

1) 글로벌 기업 생산지 입지전략의 변화 움직임

- 신흥국 진출에 따른 피로감 증가
 - 최근 신흥국의 물가와 임금이 상승하자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 가운데 22%가 생산지 이전을 검토하는 등 신흥국 생산의 비용을 냉정하게 재평가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음
- 인건비 등 직접 비용 상승으로 생산지 이점 약화
 - 임금과 지대와 같은 생산비용의 증가로 앞으로 해외에서 본국으로 이전하려는 선진국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숨은 비용에 대한 기업 인식 확산
 - 선진국 기업들은 신흥국에서 생산할 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과 숨은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신흥국 이전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음

- 외부효과 상실 등 경쟁력 저하 우려
 - 선진국 기업들의 해외 이전은 자칫 제조업 생태계를 해체하고 생산과 혁신을 분리하여 혁신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2)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

- 국내 U턴기업 지원정책, 비용감면 지원만으로는 한계
 - 우리 정부도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를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그러나 국내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야 국내 이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제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과 더불어 국가적 관심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이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에 근간이 된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은 단기간 내 확보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반이 약화될 경우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하는 것이 중요
- 국내 제조기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이 해법
 - 우수한 소재·부품 경쟁력, 클러스터 효과(독일, 일본), 우수한 연구인력, 자본시장(미국) 등의 제조기반 경쟁력을 높여야 함
 - 간접비용들을 줄여주고, 외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조기반의 강화가 있어야 함.
 -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이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강화되고 있는 산업간 융합에 따른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
 - IT의 발달, SNS를 비롯한 네트워크의 확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 약화로 제조업이 연관산업과 융합하는 현상이 뚜렷함

- 각국의 산업정책은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 선진국 경쟁업체들의 경쟁력 회복은 선진국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 시장에서도 경쟁 격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우리의 경쟁 우위 요소를 재점검하고 소비자 신뢰 및 브랜드 가치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신흥국 정부는 관세 인상, 수입쿼터 규제 등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IV. 제조업 전반의 지원방안

1. 대전 제조업 특성 및 정책과제

1) 제조업체 규모 특성

① 제조업체 규모 동향

- 지역 제조업 사업체수는 2000년 623개에서 2010년 796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종사자수는 2000년 32,876명에서 2010년 36,753명까지 매년 등락을 반복하면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침
 - 이는 기술발전에 의한 생산자동화, 노동투입보다는 자본투입 중심의 생산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
- 출하액은 2000년 6조 9,057억원에서 2010년 13조 6,424억원으로 1.98배 증가하였으나, 부가가치는 같은 기간 3조 3,255억원에서 5조 3,312억원으로 1.6배 증가

②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기준 상위 10대 제조업

- 사업체수 기준 상위 규모 제조업은 기타 기계 및 장비(15.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1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11.4%), 금속가공제품(7.0%), 식료품(6.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6.3%), 전기장비(5.2%) 순임
- 종사자수 기준 상위 규모 제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15.5%), 기타 기계 및 장비(13.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10.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9.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8.3%), 금속가공제품(6.0%) 순임

③ 출하액과 부가가치 기준 상위 10대 제조업

- 출하액 기준 규모가 큰 상위 제조업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14.5%), 기타 기계 및 장비(14.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0.3%), 화학물

- 질 및 화학제품(1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9.0%), 전기장비(6.3%) 순임
- 부가가치 기준 규모가 큰 상위 제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13.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13.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0.7%), 기타 기계 및 장비(9.9%), 담배(8.8%), 전기장비(7.4%), 식료품(6.2%) 순임
- ④ 종사자수 및 출하액 규모별 사업체수 및 변화 추이
- 종사자 규모별 제조업 사업체수(10인 이상)는 10~19인 규모가 382개로 전체의 48.0%, 20~49인 규모가 276개로 전체의 34.7%를 차지하여 10~49인 규모가 전체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14개로 전체의 1.8%에 불과함
 - 출하액 규모별 제조업 사업체수는 10~50억 규모가 402개로 전체의 50.5%, 50~100억 규모가 전체의 13.2%, 5~10억 규모가 전체의 8.2%를 차지하여 출하액 100억 미만 규모 사업체가 전체의 623개로 전체의 78.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1,000억 이상 출하액 규모는 23개 사업체로 전체의 2.9%에 불과한 실정임

2) 제조기업 경영실태 특성

- ①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은 전산업과 제조업, 제조업부분의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이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증가율이 전국보다 높은 수준임
 - 총자산 증가율은 전산업보다 제조업이 높지만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중소기업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국보다 높은 수준임
 - 유형자산 증가율은 전산업과 제조업의 증가율이 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 유형자산증가율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국보다 높은 수준임

②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산업은 전국보다 높지만 제조업이 전국보다 낮으며, 제조업부문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전국보다 높고,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임
-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제조업부문의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전국보다 크게 높지만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높은 수준임
- 이자보상비율은 대전이 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제조업 전체, 그리고 제조업부문의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

③ 재무구조

- 부채비율은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 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부문의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모두 부채비율이 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차입금의존도는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면서 전산업보다 제조업의 차입금의존도가 낮고, 제조업부문의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모두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역내에서는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차입금의존도가 대기업과 수출기업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 자기자본비율은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제조업부문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모두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과 수출기업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음

④ 생산성(I)

- 노동장비율은 대전이 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보다 제조업이 특히 높은 수준임. 제조업부문의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노동장비율이 특히 높은 수준
- 자본집약도 역시 대전이 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보다 제조업이 특히 높은 수준임. 제조업부문의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자본집약도가 특히 높음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대전이 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보다 제조업이 특히 높은 수준임. 제조업부문의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특히 높음

⑤ 생산성(II)

- 총자본투자효율은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 전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모두 전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부가가치율은 전산업보다 제조업이 낮지만, 전국과 같은 수준이며, 제조업부문의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임

3) 정책과제

①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 제역 제조업 사업체수는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종사자수는 정체된 상태임. 이는 10~49인 규모의 사업체는 증가하였으나 200~299인 규모와 500인 이상의 중·대규모 기업이 감소한 이유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따라서 200인 이상 중·대규모 기업의 지역 입지 유지를 위한 정책과, 신규 유치를 통해서 제조업부문의 일자리가 증대될 수 있는 지원정책이 요구됨

② 제조업 상위 10대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매출액 또는 출하액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 대전지역의 제조업분야 상위 10대 산업에 대한 산업입지와 경영실태 파악을 통한 경영활성화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제조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③ 제조기업의 자산 증대를 통한 성장성 제고

-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 및 유형자산 증가율이 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제조업분야 기업의 안정적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업의 자산 증가율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도 고려되어야 함.

④ 제조업부문 중소기업 및 내수기업의 수익성 제고

- 제조업부문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전국보다 낮고, 매출액세전순이익률과 이자보상비율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대기업과 수출기업에 비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폭이 작음에 따라 제조업부문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관련 지원정책 필요

2. 부문별 지원시책

1) 연구개발(기술개발) 지원

① R&D 지원 확대

- 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비중 확대
 - 글로벌 원천기술 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규모로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응용기술 개발 집중 지원
 - 소재, 부품, 장비, SW 등의 분야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
 - 매년 유망기술을 신규로 선정, 기술당 3~5년간 총100억원까지 지원
- 중소·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

② 사업화 촉진 및 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

- 우수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원방식 다양화
 - 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대형과제를 추진하고, 외국기업·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글로벌 R&BD 도입
- 지적재산권 고부가가치화, 사업화를 위한 민관합동의 창의기구 설립
 - 지적재산 매입 → 고도화 → 라이선스 및 이전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회사
- 해외시장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 특허분쟁 예방을 위해 IP(지적재산권)-R&D 연계지원 도입
 - * R&D 기획시, 시장·선도기업 동향 및 특허 분석을 통해 IP 전략도 동시 수립
 - 주요국 특허분쟁지도 및 특허소송 다수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 제공

③ 기업주치의제 도입

- 근접지원(30분내 도달)을 원칙으로 일정 기업군(100개 이상)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기업주치의센터」 지정·운영
 - 기존의 대학, 연구기관, R&D서비스기업 등 기술지원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 기업주치의가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을 진단하고,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1:1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애로기술지도, R&D전략·성장아이템 발굴, 연구장비·시험분석 서비스 연계, 대학·연구소 등 협력파트너 발굴, 금융기관 연계 등
- 기업주치의는 직접 또는 산학연관 주체가 보유한 자원(기술·인력·장비 등)을 연결하여 문제 해결시까지 책임지고 완결

2) 인력양성 지원

① R&D·마케팅 등 전문인력 확보 지원

- 기업활동 단계별로 사업성격에 맞게 특화하여 지원
 - 「중소·중견기업 전문인력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지경부는 기술·연구인력을, 노동부는 제품화·생산·마케팅 전문인력 고용 지원
- 상생협력 차원의 협력업체 인력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확산
 - 업종별 「상생협력지원단」 구성·운영
 - 협력업체 인력 대상 교육, 기술지도 등 소요경비 지원, 세제혜택·포상 등 유인 제공
- 기업 맞춤형 우수 연구인력 공급기반 구축
 - 기업에 출연연 연구인력을 파견(3년 이상)하는 제도 도입
 -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인근 대학에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화(연구마을)하는 방안 검토
 - 현장 중심으로 연구인력을 육성하는 엔지니어링 하우스*를 확산
 - * 기업의 신상품 개발과 대학의 교육이 동일한 공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기업이 대학의 연구실을 공유하는 산학협력시스템

②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채용 지원
 - 대기업 퇴직전문가 DB를 구축(전경련), 「중견전문인력 종합고용지원센터(중소기업중앙회)」와 연계하여 효율적 매칭 유도
 - 「대기업 퇴직인력 헤드헌팅 전담반*(대전상공회의소, 신설)」을 통해 고용 지원
 - * (구성) 대기업 인사 경력자 등 10여명
 - (운영) 정부·민간 경비분담, 업체 수수료 지불
- 퇴직기술자를 납품업체에서 고용하는 「재고용 협약제도」 도입
- 대기업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 자문지원 추진

③ 해외 전문인력 발굴·유치·적응 지원

- 해외 전문인력 도입 및 기술지도 지원사업 확대·개편
 - 해외 전문인력 도입 지원 범위(기술 → 마케팅), 규모(500명 이상), 대상(중소 → 중견)을 확대
- 인력 유치를 위한 기업 신뢰성 향상* 및 국내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출연연 등의 적격심사 및 추천, 유치기업 - 출연연 공동명의 초청서한 발송 등

3) 마케팅 지원

①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 “해외 정보 네비게이션 프로그램” 도입
 - 해외 진출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구축(On/Off-line 동시 제공)하고, 고급정보와 현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
- “패키지형 마케팅 지원서비스” 신설
 - 기업의 수출 성숙도에 따라 패키지 구성을 차별화하고, 전담직원이 신청-완료 시까지 밀착 지원하는 ‘멘토제도’ 도입
 - “네비게이션” 및 “패키지” 서비스 전담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전충남지역본부 내에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센터」 구축 검토

V. 전통 제조업(뿌리산업) 지원방안

1. 뿌리산업의 개념과 특성

1) 뿌리산업의 개념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접합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으로 생산기반의 핵심이자 제조업의 원천임
 -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등 제품의 형상을 제조하는 공정과 열처리, 표면처리 등 소재에 특수 기능을 부여하는 공정으로 구분
 - * 6대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 외형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종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
 - 뿌리기술은 최종제품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국가 주력산업의 품질 및 생산성을 좌우하며 전방수요산업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기술임

2) 뿌리산업의 역할

- 뿌리산업은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갖춘 뿌리산업군이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명품 제조업의 탄생을 견인
 - 스위스의 손목시계, 쌍둥이 칼, 독일의 벤츠, 이태리의 핸드백 등 세계적인 명품은 모두 튼튼한 뿌리산업의 토대 위에서 탄생
 - 국내 자동차, 조선, IT 산업의 성공도 주조, 금형, 열처리, 소성가공 등 뿌리산업군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

3) 뿌리산업의 특징

① 전통제조업 기반

- 뿌리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으로 소재산업과 완제품 조립산업의 중간지점에 위치
 - 주로 부품 및 모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최종제품의 품질 및 성능을 결정
 - 또한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기계산업의 부품·소재의 품질 및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산업으로서 전망수요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큼
 - 부품·소재의 품질과 성능이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술 선도형 산업임
 -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갖춘 뿌리산업군의 존재가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명품 제조업 탄생을 견인함

② 신산업 탄생 견인

- 뿌리산업은 기술의 첨단화 및 융·복합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 탄생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
 - 로봇,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산업 등 신산업의 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산업으로 미래시장 선점의 기반
 - 수요 산업의 고도화, 첨단화에 따라 청정에너지 분야, 초정밀분야 뿌리산업 등 첨단분야의 고부가가치 뿌리산업 육성 필요

③ 기술 프리미엄

- 뿌리산업은 빠른 기술 확산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선진국의 마지막 기술 프리미엄 영역
 - 암묵지(Tacit Knowledge)로 체화되어 존재하는 뿌리산업의 공정기술은 특성상 단기간 내 기술 습득이 곤란

2. 뿌리산업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1) 주요 국가들의 뿌리산업 정책 추진 현황

① 미국

-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미국의 제조업 부양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
 - 제조업 비용을 유발하는 7개 요인에 대한 정책 전개 방향 제시(노동, 기술 및 비즈니스 관행, 설비, 위치, 운송, 시장 접근성, 규제 및 조세)
- 기술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부품공급업체가 새로운 고성장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Best Practice 보급 시급

② 일본

- 제품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부 주도의 뿌리산업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후발국 추격 견제
-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반성으로 '모노쯔쿠리* 고도화법'을 제정(2006년), 세계 최강 일본 제조업 명성을 되찾고 경제 부흥을 도모
 - * 일본 제조업의 근본정신인 투철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뿌리산업의 설계, 구매,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③ 독일

- 독일연방정부는 뿌리기술 포함, 17대 첨단기술분야를 지원하는 '독일 하이테크 전략(Hightech-Strategie Deutschland)' 추진
 -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총 60억 유로 중 뿌리기술 분야에 2.5억 유로(한화 약 5천억원) 지원
- 고도의 뿌리산업을 기반으로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
 - 정부주도 대규모 R&D자금(2009년 기준, 4억 4천만 유로)을 투입하여 나노+뿌

리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 전자, 공학산업에서 신시장 개척

④ 중국

- 제조업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고도화로 산업구조를 전환하여 기술집약적 제조업으로 기술 선진국 추격
- 주요 뿌리기술을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
 - 금형의 경우 자동차 내장재 금형의 7개 금형군, 금형디자인 기술 외 5개 기술 등 관리

2) 뿌리산업의 극복해야 할 과제1)

① 기술 선도기업 부족

- 전반적인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열세이며,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로 뿌리산업 성장률은 하락세
- 고급기술을 요하는 첨단산업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 전체 뿌리기업의 8%에 불과
 - 첨단산업분야 기술선도기업 매출액 비중은 뿌리산업 분야 총매출액의 26%, 내국인 고용의 20%를 차지(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9년)

② 인력난, 생산성 및 품질관리 취약

-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핵심 공동기반인 뿌리산업은 작업자의 현장경험에 의존하여 생산성 및 품질관리 취약
 - 소성가공분야의 경우, 1인당 생산성 일본1/5, 미국 1/2(불량률 비교 데이터)
- 뿌리산업은 3D업종으로 인식되는 열악한 생산환경 때문에 기피산업으로 분류되고, 유능한 젊은 신규인력의 유입이 어려워 악순환적 역학구조

1) 김성덕(2011), "제조업의 원천, 뿌리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PD ISSUE REPORT_', ISSUE 4, August 2011 Vol.6, 84~85쪽.

- 고급인재 유입 저조, 숙련 기능인 이탈 → 기술개발 저조 → 1인당 부가가치는 담보 상태이며, 국내 뿌리산업 1인당 부가가치는 3,826달러로 일본의 45% 수준
 - 뿌리산업의 고급인재(석사 이상, 숙련기능인) 종사자는 매우 부족
 - 국내 뿌리산업 연구인력은 종업원(20만명) 대비 5% 수준(그나마 설계인력이 대부분)
- ③ 저탄소 녹색산업구조로의 전환 시급
- 뿌리산업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으로 환경·에너지 규제 대응역량이 취약
 - 뿌리산업은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량(TOE/백만원)이 1.26으로 0.34인 제조업 평균보다 높고 CO₂ 배출량은 9.6Mt으로 전체제조업(310.7Mt)의 3.1% 차지
 - 중소기업 구조적인 특성에 따른 자체 연구역량 부족으로 환경부하·에너지 저감 정책을 우선시 할 경우 전주기적악순환*이 예견되는 상황
 - * 제조업 부가가치 저하 → 저임금, 복지수준 저하 → 인력난 → 저생산성 → 부가가치 하락
- ④ 시장환경 패러다임 변화로 글로벌 무한경쟁 심화
- 글로벌 부품공급시스템에 따라 로컬 기업의 틈새시장 공략 어려움
 - 자동차의 브레이크 피스톤 등과 같은 부품의 경우 1위 기업의 점유율은 30~35%, 상위 2대 50%, 상위 5대 기업 점유율이 75% 차지(KOTRA, 2010년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망)
 - 기존의 품질·생산력 경쟁력 중심에서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및 제조업과 NT·IT·BT를 융합한 새로운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3) 뿌리산업의 정책 추진과제

- ① 국내 및 지역보유 선진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수준 유지 및 첨단기술 개발 강화
 - 국내 뿌리산업 기술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이나, 금형(선진국 대비 95%) 등 경쟁 우위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수준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 * 마이크로 접합, 미세 성형가공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박육성형기술, 이색성형기술, LED제조기술(백색가전(TV 포함)), PCB 제조기술 등은 선진국 대비 동등 또는 우위
 -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의 첨단화 및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탄생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 발굴 지원
 - 특히, 개도국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프리미엄급 기술 개발 강화
 - 기술로드맵 및 개발 지원전략 수립시 표준 및 특허전략과 연계도 필수

- ② 기술개발만으로는 한계, 선진국 도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 안정적인 수급망 확보 및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들의 안정적인 활동 강화 지원
 - 전문인력 수급을 위해 청년층 고급인력들이 자발적으로 뿌리산업 분야에 유입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지원정책 마련
 - 환경부하·에너지 저감을 위한 최적화·단축화·대체화 공정개발 및 고효율·첨단화 공정설비개발을 위한 종합적 R&D 추진전략 수립

- ③ 뿌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제조환경 혁신
 -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IT기술, 인프라를 뿌리산업과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 불량률 저감 등을 통한 뿌리산업 제조환경 선진화 실현
 - 뿌리산업의 플랫폼 국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아시아 및 전략적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일반 상용 뿌리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
 - 수요 제조업의 고도화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뿌리산업의 기술개발 발전

< 표 5-1 > 뿌리산업 생산기반기술 발전 방향

미래 제품·산업 추세	생산기반기술 발전 방향	
초소형화·복합기능화 초대형화·극한지 적용 친환경·에너지절감 인간친화·고생산성	수요산업 니즈의 고도화	마이크로화 : 미래 유망산업 및 주력산업의 첨단 핵심부품 제조를 위한 초소형·초정밀 생산기반기술
		초대형화 : 고생산성 및 대형제품 제조를 위한 생산기반기술
		유비쿼터스 : 집목 제조현장 중심의 지식정보기반 원격·지능형 생산기반기술
		이노-퓨전 : 미래형 신개념 생산기반기술 및 컨버전스 제품화 대응을 위한 융합화 생산기술
		그린화 : 친환경 및 신에너지 제품의 경제적 제조를 위한 생산기반기술

자료 : 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2010), 「Overview & Insight」, 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산업경제 이슈 리포트, 제1호 2010.5.3.(월)

3. 뿌리산업 지원방안

1) 뿌리산업의 첨단화

- ① 세계적 수준의 국내 IT기술을 뿌리산업에 적용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 IT+뿌리산업 융합을 통한 핵심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로 지역 주력산업(기계, 전자, 화학공업 등)의 동반성장 유도
 - 제조공정과 IT 결합으로 불량률 감소 및 선진국형 제조환경 마련
 - 선진국 수준으로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 원천기술개발과 함께 지식정보화, 자동화 응용기술 및 협업시스템기술 개발 필요
 - 뿌리산업 제조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화를 통한 부품제

조의 지능형 설계 및 자동화 추진

- ② 글로벌 환경규제를 선도할 수 있는 신녹색기술 개발 강화
 - RoHS, EURO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을 넘어 선도할 수 있는 전방방산업 핵심부품 제조를 위한 요고기술개발 강화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향후 발효될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분석과 홍보 강화
 - 에너지, CO₂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형 뿌리기술 개발 강화
- ③ 6대 뿌리산업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강화
 - 환경부하 저감, 에너지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단순 및 대체 공정기술 개발
 - LED 방열모듈과 같은 경우 현재 개발이 시급한 기술로서, 소재, 금형, 성형, 접합, 표면처리 융합을 통해서 가능
 - 고부가가치형 융·복합 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신시장 개척과 시장 선점의 양면 효과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개척의 돌파구 마련
 - 제조공정 및 에너지 소비 정보 등의 최적화 제어 환경을 IT기반과 접목함으로써 신뿌리산업 창출

2) 뿌리산업의 고도화

- ① ACE 산업으로의 변신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
 - 기존 3D업종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ACE* 뿌리산업으로의 변신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 ACE산업 : 공정과정이 자동화 되고(Automatic), 청정하고(Clean), 쉽게(Easy) 개선된 산업
 - 뿌리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체들이 국제표준(Global Standard) 기업으로 도약

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생산기반 원천기술 확보

- 기존 연구과제 경쟁수주 방식에 입각한 제한된 범위의 지원방식이 아닌 녹색뿌리산업 핵심 원천기술 개발, 확산·보급 및 정착을 위한 통합적 지원방안 마련

< 그림 5-1 > ACE 뿌리산업 개념



자료 : 김성덕(2011), "제조업의 원천, 뿌리산업어브이 현황과 발전전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PD ISSUE REPORT」, August 2011 Vol.11-6, 93쪽.

② 뿌리산업 종주국으로 도약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 뿌리산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지역 연고 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발굴하고, 뿌리기업 및 전문인력 실태 파악을 위한 뿌리산업통계 구축 추진

③ 대를 이어 100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고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뿌리산업 대표모델 발굴 전략 수립
- 6대 뿌리산업별 월드챔피언 중견기업을 발굴하여 핵심분야 중점 육성

- 대를 이은 뿌리산업 계승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 매력적인 포상제도 도입 KBS “100년의 기업”과 같이 “대를 잇는 뿌리기업” 방송기획 추진 등

3) 뿌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① 맞춤형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 미래 선도기술 및 단기 상용기술에 대한 R&D 지원
 - 중소기업의 주도 기술개발이 어려운 미래 선도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주도(지식경제부)로 중·장기 R&D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뿌리산업 분야 제조기반 기술 R&D 자금 지원을 확대. 특히 현재 시점에서 상용화가 시급한 기술은 개별 중소기업 주도(중소기업청)의 단기 R&D 지원을 실시하고, 단기 상용기술 개발 자금을 확대
- 영세 소기업 대상 R&D 지원
 - 중소기업청의 산·학 공동 기술개발 ‘지역 사업*’을 영세 소기업 중심의 R&D 프로그램으로 재편
 - * 산·학 지역사업 : 매출액 20억원 이하 또는 업력 7년 이내 소기업, 1년 1억원
 - 기술혁신 여건과 경험이 부족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인력,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

② 개발기술의 사업화 제품화를 통한 성과 확산

-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 지원
 - 뿌리산업 분야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
 - 특히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용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 민간 자금으로는 시중은행(기업은행)·기보 등과 연계하여 뿌리산업 분야 R&D

성공 과제에 대한 사업화 용자자금을 운용

* 정부 추천 과제(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 인하 등 우대 조치

- 우수 개발기술의 제품화 관련 비용 지원
 - 우수·유망기술에 대한 사업화 초기단계를 지원하는 R&BD(사업화 연계기술개발) 지원을 실시
 - 양산 단계에서는 뿌리 기업 개발 완제품의 신뢰성 시험·분석 비용을 지원
 - * 지방중기청 이용 시 무료, 연구기관 장비활용 시 60% 지원
- 중소 뿌리기업의 마케팅 및 홍보지원
 - 중기청의 지원시책 추진 시 뿌리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판로, 해외시장진출 등의 우대 제공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정보 제공 등 정부의 마케팅 지원 사업(지경부, 중기청)을 활용, 신시장 개척을 지원
 - 뿌리 기업의 홍보책자 제작, 해외 전문전시회 참여 등 홍보 지원

4) 뿌리기업 경영여건 개선

① 뿌리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 기업 규모별 맞춤형 유동성 지원 확대
 - 신·기보 등 보증대상에서 소외되는 영세 뿌리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여 영세 뿌리기업의 대출보증 시 우대 지원, 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우대도 제공
 - 수요 대기업과 직접적 거래 관계에 있는 1~2차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을 확대하여 대·중소기업의 상생보증을 지원
 - * 신용등급 6등급에서 7등급으로 상생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술력, 성장 잠재력을 지닌 유망 뿌리기업을 지원
- 이행보증 프로그램 도입 추진

- 수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정액을 자본재공제조합에 출연하여 뿌리기업에 대한 이행 보증을 지원.
- 자본재공제조합 內 이행보증사업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뿌리기업의 자재구입 지급보증, 계약보증 등을 시행. 무담보 신용보증, 신용 등급별 보증한도 확대, 보증 수수료 감면 등을 우대 지원.
- * 보증 한도(안) : 기존 조합원 대비 1.5배,
보증수수료(안) : 기존 조합원 대비 1/2

② 뿌리산업 전문기업 선정·육성

- 뿌리산업 각 분야별로 세계적 기술 역량을 갖춘 뿌리산업 전문 중소기업 선정·육성
 - 핵심기술 부여여부, 기술수준, 기술인력의 숙련도, 생산공정 IT화 수준 등을 중심으로 평가·선정
 - 뿌리산업 전문(후보)기업의 기업현황 및 지원이력 등에 대한 종합 D/B 구성 항목은 종업원수, 매출액, R&D투자, 주력품목 및 보유기술 등이며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중소기업정보(약 70만건 이상)를 연계하여 활용
- 지원내용은 기술 개발, 정책자금 지원, 제품화·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이며 정부 지원시책 추진 시 우대.

5) 뿌리산업 인력수급 원활화

① 혁신인력 양성 : 공급체계 강화

- 현장 기능인력 양성 시스템 강화
 - 뿌리산업 관련 마이스터高 재학생 확대.
 - 특화 전문계高와 중소 뿌리기업과 취업 협약을 체결하여 현장 수요에 맞는 기능 인력 양성, 공급

- 고교 3학년 6개월 간 기업 현장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중기청,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
- 뿌리산업 분야 전문아카데미 운영
 - 뿌리산업 분야 업종별 전문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
 - 용접전문아카데미(Welding Academy)과정을 폴리텍대학에 개설하여 시범 운영하고, 시범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6개 업종별 아카데미 과정으로 확대 추진
- 기능인력 유입을 위한 제도
 - 중소기업(뿌리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산업기능 요원제도(12년 폐지예정)의 한시적 연장 검토.
 -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우수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새터민의 뿌리산업 분야 취업지원
 - 새터민 중 뿌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인력에 대해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지원
 - 뿌리기업의 작업환경, 성장가능성, 기술습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망 뿌리기업으로서의 취업을 알선
 - 고용지원센터, 업종별 조합, 구인기업, 지방 중기청 등과 연계하여 뿌리기업 취업 희망 새터민의 취업을 지원
 - 뿌리기업에 취업한 고학력 새터민에 대해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를 활용, 재직자 훈련을 지원
 - 주말·야간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입학생에게는 등록금의 70%를 지원
- ② 뿌리산업 종사자 자긍심 고취 및 후생복지 지원
 - 뿌리산업 분야 「명장(名匠)」확대 및 예우수준 제고
 - 「명장(名匠)」선정 요건을 완화하고 선발 인원을 확대하여 발굴을 활성화
 - 「명장(名匠)」에 대한 예우 수준을 제고하여 최고 기능 인력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장 선정자가 동일직종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계속 종사 장려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
 - 이중 산업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명장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수여도 추진
 - 대를 잇는 「뿌리산업 명가(名家)」발굴·지원

- 2대 이상 가업을 승계한 중소기업 중 업력, 기술력, 성장가능성, 시정점유율 등을 고려, 「뿌리산업 명가(名家)」를 선정
- 업종별 단체, 학계, 전문가 등 「명가(名家)」선정위원회를 구성, 매년 업종별 5개 내외 업체를 선정, 명패를 수여,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 등의 혜택 부여, 정부 R&D 사업 참여 시, 협동화 정책 자금 우선 지원 등의 기업활동 지원
- 뿌리산업 명가 「온라인 명예의 전당」 설립, 홍보 영상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여 홍보를 강화.

* 뿌리산업 명가 온라인 명예의 전당 : www.RootMaster-Hall.org

○ 뿌리산업 재직자의 후생복지 지원

-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주택 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가점을 부여
-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 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 사업시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가점을 부여
- 뿌리기업 밀집지역 내 공동복지시설, 공동숙박시설, 보육시설 등 생활 여건 개선 추진

6) 뿌리산업 글로벌화

① 뿌리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 선진국의 아이디어, 한국 및 지역의 생산기술, 개발도상국의 자원 등 동반성장 구도의 글로벌 협력체계 마련
- 이머징 마켓 선점을 위해 글로벌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 마련
- 해외 우수기업의 지역내 기술이전 장려를 통한 선진기술력 확보
 -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기업의 전문화, 대형화 및 기술교류를 통한 산업경쟁

력 향상으로 글로벌 아웃소싱 네트워크 구축

② 아시아지역에서 뿌리산업 플랫폼 국가로의 위상 정립

- 최근 중국에서 뿌리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급증하므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국 외 아시아 국가들과의 기술교류 확대
- 국내에서 상용화된 뿌리기술을 아시아 지역 뿌리산업 관련 기업들에 대한 보급·확산사업 추진
 - 뿌리기술의 한류화를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뿌리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동유럽 및 남미로 지원 확대
- 정기적으로 뿌리기술 아시아포럼을 개최하여 기술교류 및 홍보 활성화

③ 6대 뿌리산업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딩기업 육성

- 대기업 종속형 산업구조에서 든든한 동반성장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책 마련
- 글로벌 수요 및 급변하는 시장 및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기업규모 대형화 유도
 - 동종 또는 이종 뿌리산업 기업 간 M&A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는 동시에 기술트렌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딩기업(front-runner company) 육성

VI. 제조업 강소기업 지원방안

1. 고성장 중소기업 지원방안

1) 고성장 중소기업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① 일반적 특성

- 기술혁신 특성 : 고성장기업의 성장원천은 고객에 기반한 기술혁신
- 시장 특성 :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장
- 조직 및 인력 특성 : 분권화된 조직구조와 다양한 인센티브시스템을 운영

② 국내 고성장 중소기업의 특성

- 평균 업력 10년 이상
- 고용 성장은 매출 성장을 상회
- 글로벌화를 통해 매출 성장을 달성
- 고성장 기업의 성장원천은 기술혁신

2) 고성장 중소기업의 애로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① 고성장 중소기업의 애로요인

- 고성장 중소기업의 성공 및 애로요인은 인력문제에 집중
- 기업의 비전 및 핵심역량에 기반한 산학연 연계 지원 필요
- 고성장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수준은 미흡

② 시사점(김석현, 100대 고성장 기업, p.22)

- 기술집약적 중견기업을 중심축으로 하는 기업생태계의 현실화의 가능성 커짐
 - 기술기반 중견기업이 기술공동체로서의 기업생태계의 축이 될 수 있음
- 에너지·환경 패러다임의 변화가 기업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가시화
 - 기업의 성장동학은 신기술환경과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환경에 힘입음
 - 친환경 패러다임은 IT에 이어 부각한 중요한 기술환경으로서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3) 고성장 중소기업의 정책방향

- ① 기술력 있는 중견기업을 축으로 하며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산학연 협력체를 구현하도록 함
 -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대기업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자체보다는 마케팅, 디자인, 시스템적 설계에 보다 초점을 두는 방향이 맞음
 - 중견기업의 위상을 새로운 제품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내는 기술기반 기업으로 정립하고, 중견기업을 축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출연연,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를 구성
- ② 친환경 패러다임에 대비한 적절한 규제와 지원정책 배열, 그리고 신뢰성 있는 미래 비전이 제시되고 합의되어야 함
 -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기술환경이 원활하게 신산업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과 제도가 필수적임
- ③ 2-Path Way 지원방식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촉진

- [Path 1]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성장 중소기업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 [path 2] 고성장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 지원

④ 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대응체계 마련

- 고성장 중소기업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수요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 및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체계 마련
- 부처간·지원기간간 분산된 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고성장 중소기업의 지원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

⑤ “시장-기술-인력” 통합 패키지(Package)형 지원체계 마련

- 고성장 중소기업이 “시장 기획-R&D-기술인력” 문제를 일괄 해결할 수 있는 통합 패키지형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책 대응 능력 향상

4) 세부 추진 사업

① 고성장 중소기업 지원단 설치

- 구성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중심으로 대전광역시, 대전테크노파크가 협력하고 KOTRA, 정부출연연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
- 역할
 -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 특별회계 마련을 통한 통합 패키지형 자금 지원
 - 고성장 중소기업 인증 및 경영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중소기업형 성장유망 품목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 고성장 중소기업 정책 수요 발굴 및 실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

- ② 성장유망품목 발굴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성장 기업화 지원
 - 중소기업형 녹색성장 및 신성장 동력 품목 발굴 지원
 - 세계적으로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녹색성장 및 신성장 동력 산업의 중소기업형 품목 발굴 및 R&D 지원을 통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성장 기업화 지원
 - 수입대체 유망품목 발굴 및 R&D 지원
 - 고성장 중소기업의 다수가 국내 주력산업의 부품·소재 분야에서 수입대체를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
 - 부품·소재 무역역조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형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인 R&D 투자 지원

- ③ 고성장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 마련
 - 고성장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 지원
 - 내수시장 중심의 고성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시장기획 및 탐색-R&D기획-사업화 연계형 지원프로그램 도입

- ④ 고성장 중소기업 인증을 통한 인력수급 원활화
 - 현행 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을 활용한 인력수급
 - 고성장 중소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고성장 중소기업 지책 인력에 대한 교육기회 호가대 등을 통하여 우수인력과 고성장 중소기업간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해소

2.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강화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 '수출확대 → 고성장 → 고용확대'라는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는 국가 및 지

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

- 중소기업 중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면서 전문분야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축적한 '글로벌 강소기업(Hidden Champion)' 육성이 필요
- 우리 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제시 필요

2)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① 지역 중소기업의 문제점

-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R&D 투자, 수출 등 질적 경쟁력이 취약
- 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침탑형 산업구조가 지속
 - 국내 및 지역 기업생태계 내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지나치게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독일 등 선진국(항아리형)과 상이한 구조
 -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인도 미흡하여 성장 기피 현상이 발생
 - 대기업 종속적인 납품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수출 비중이 낮고, 납품 구조가 독립적인 기업들은 기술개발 노력이 미흡
- 이상의 중견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및 제품·기술개발을 통한 질적 경쟁력(시장 지배력) 제고가 필수적
 - 낙후된 거래관계 개선 등 동반성장 생태계 활성화 노력도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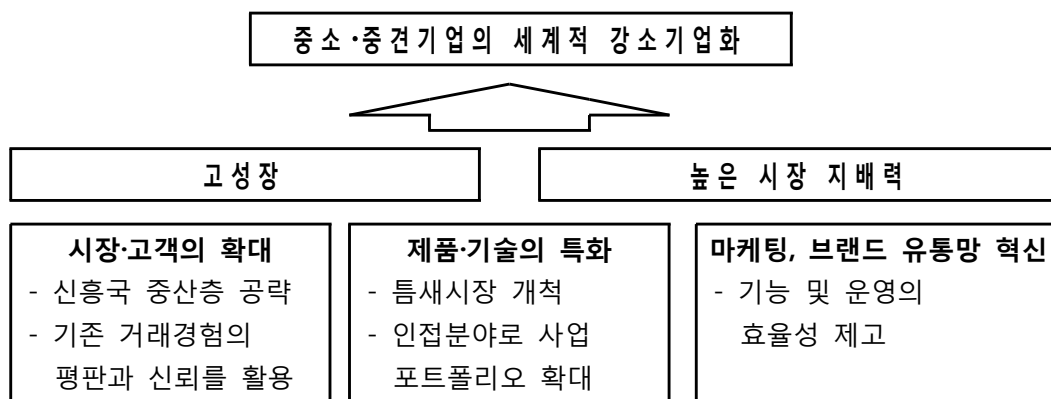
② 글로벌 강소기업 도약의 기본방향

- 글로벌 강소기업의 특징은 고성장과 높은 시장 지배력
 - 고성장의 원동력은 글로벌화와 혁신
 - 시장 집중 및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틈새시장 개척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 단

순 시장점유율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면서 세계시장을 주도

- 고성장 및 시장 지배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고객의 확대, 제품·기술의 특화, 마케팅·브랜드·유통 등 기능적 차별화가 필요
 - 글로벌 시장 및 고객을 발굴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
 - 틈새시장 개척 등을 통해 제품·기술을 특화하고 시장 지배력 극대화
 - 마케팅, 브랜드, 유통망 등 기능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그림 6-1 > 중소·중견기업의 세계적 강소기업 도약방안



자료 : 박찬수(2012),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wp92gh, 2012.4.15., p.13

3) 중소·중견기업의 발전과제

- ①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수용하기 위한 학습조직 시스템 구축
 - 강소기업들은 성공합정 및 기술지상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수용하기 위한 학습조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강소기업의 유형별 성장경로가 다를 수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과 협력, 적응을 위한 개방적이며 유연한 학습조직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② 경영관리체계의 개선 및 내부 혁신시스템 구축

- 급속성장에 따른 성장통(Growing pain)을 극복하고 성장패턴에 따른 성공함정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경영관리체계의 개선 및 내부 혁신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그림 6-2 > 강소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제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인형 기업들이 많고 기술지상주의에 빠질 가능성 존재 ● 규모의 불이익의 존재 가능성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임 ●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부족, 매출액 규모에 비해 부족한 경영관리시스템 ● 기술과 R&D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업화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있음 ● 내부 R&D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 개방형 혁신에 약한 편임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상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Double-loop learning system을 갖춘 학습조직의 구축이 필요 ● 소규모 기업에서 급속성장에 따른 미비한 경영체계를 개편하고 급속성장에 따른 내부적 진통을 줄일 수 있는 경영관리가 요구됨 ● 지속적인 정보의 탐색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모니터링,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이 필요함 ● 다양한 협력력 네트워크의 구축과 개방형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술과 시장에서 강점을 갖는 다양한 기업과의 적극적인 제휴관계를 구축 ● 특허관리에 필요한 CEO 및 임원의 역량의 개발 및 마인드 고취가 요구됨

- ③ 적극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매출정체에 의한 성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보탐색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업의 기회를 찾는 노력과 사내 벤처링의 활성화 등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④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와 개방형 혁신시스템 구축
 -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개방형 혁신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특히 기술에서 강점을 갖는 벤처기업은 물론 영업과 유통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대기업과 적극적인 상생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및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⑤ 진입장벽의 구축과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기반 조성
 - 기술혁신과 개발에 있어서 특허관리를 통한 진입장벽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CEO와 임원의 특허관련 역량개발과 마인드의 고취가 요구됨
 -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위해 개방형 혁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상생협력에 필요한 외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사업

- ①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거점”을 설치하여 제품 판매시장의 확대를 지원
 - 마케팅·유통망 구축, 입주공간 제공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 독자적인 수출역량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브랜드 역량 제고 및 신흥국 마케팅 지원
 - 지역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시장 공략을 지원
 - 기업의 업력이나 주력 업종, 기술수준을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 지원을 고려
 - ※ 독일은 중견기업의 발전단계를 창업·성장·확장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
 - 성장단계 : 혁신능력의 유지와 신제품 개발을 위한 대기업과의 협력파트너십 지원 또는 인력 확보 지원
 - 확장단계 :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High Risk의 첨단기술개발 지원 및 자금지원
 - 해외 부품·소재·장비 수요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산
 - 글로벌 시스템 대기업 및 해당 국가의 부품·소재·장비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중견기업에 정보 확산
- ② 국내 및 지역 대기업-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지원
- 미래 신산업 분야의 R&D 컨소시엄을 최우선 지원하는 등 기술개발 협력을 통한 대기업-중견기업 간 동반성장 마인드를 제고
 - 녹색, 환경산업 등 유·복합기술 기반의 미래신산업 분야는 본격적인 시장 형성 이전부터 동반성장의 기반 구축 필요
 - 대기업-중견기업 간 기술인력 협력 확대
 - 첨단 연구 장비 및 테스트 장비 등을 공동으로 활용
 - 국내 및 지역 대기업-중견기업 신흥국 동반 진출 지원
 - 국내 대기업이 신흥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국내 부품·소재 기업의 동반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해외 시장에 먼저 진출한 대기업의 인프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보급
 - KOTRA 주관으로 대기업의 해외사업 노하우를 중소·중견기업과 공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③ 특화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 글로벌 틈새시장 발굴·개척 및 제품 기획 지원
 - 세계적으로 1~2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틈새시장 영역에 지역 중견기업이 진입하기 위한 제품 기획·개발 지원
 - 틈새시장형 제품개발 기획을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치사슬 내 독점분야에서 성능·신뢰성 분석을 통한 상세한 제품 기획 필요
 - 기술개발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독립적(대기업 납품 비중 30% 미만) 중견기업 대상의 R&D 자금지원 프로그램 신설
- 중견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사업전환” 지원
 - 틈새시장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지원
 - 동종분야 중견기업들의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여, 업체 간 기술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선진국 기술 습득을 지원
 - 대기업 납품 비중 50% 이상인 종속적 중견기업은 사업다각화와 글로벌화를 병행
- 틈새시장을 발굴,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 고급인력의 취업, 재취업 지원
 - 대기업 수준의 우수인력이 중견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이공계 인력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
 - 정부-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인건비를 제공하고, 대학, 출연연의 퇴직연구원을 컨설팅, 멘토 등으로 중견기업에 재취업하도록 알선

④ 한국형 서비스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공략 지원

- 신규 서비스 발굴 등 국내 및 지역 서비스산업의 외연 확장을 위한 R&D 지원
 - e-트레이닝, 스마트 러닝(learning), I-패션 등 미성숙 초기시장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접근이 용이한 신규 서비스 기획 R&D 확대
 - 중견기업이 생산·개발하는 제품에 특화된 서비스 R&D 확대를 통해 고객 맞춤형 제품 및 솔루션 개발 지원

- 서비스 R&D에 대한 산·학·연 협동연구를 체계화
- 한국만의 독특한 서비스 사업모델이 있는 산업을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우선 지원
- 산후조리 서비스, 스크린골프(장비 및 운영 솔루션), 웨딩서비스 등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컨설팅 서비스 지원

수시연구보고서 2012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지원확대 및 개선방안 연구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2년 8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3519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TEL 042-000-0000 FAX 042-000-000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